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 ‘한곳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시포 견학 프로그램 운영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신 품종 식량 작물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품종 비교 전시포’(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를 조성해 해마다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벼 84품종, 밭작물 80품종을 전시한다. 벼 전시포에는 신 품종 9종(특수미 3, 밥쌀용 6)을 비롯해 시대별 품종 22종, 가공용 20종, 밥쌀용 42종 등 모두 84품종이 전시돼 있다. 모내기(이앙), 벼씨 바로 뿌리기(무논잡파), 비료 적게 주기 등 6가지 재배 유형으로 조



성, 다양한 벼 생육 방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밭작물 전시포에는 두류(콩, 팥, 녹두), 잡곡(조, 수수, 기장), 서루(고구마, 감자),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옥수수 등 12개 작목 80품종이 전시돼 있다.

올해부터는 ‘무인예찰 해충방제 트랩’, ‘달삭기 부착형 무굴착 땅속 배수’, ‘스마트한 논물관리 자동물꼬’ 등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기술 효과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견학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rcs.go.kr) 또는 대표전화(063-238-5000)로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시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운영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 견학 시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시포 내 그늘 쉼터를 마련, 안전한 관람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시포를 찾은 주요 방문객은 작목반·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가 많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전시포 견학 만족도가 95.8%로 매우 높았다. 농업 전문가가 직접 전시포를 안내하면서 방문객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식량작물 품종 선택부터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 다양한 농사 문제를 맞춤형으로 상담한 점이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황택상 과장은 “식량작물 신 품종과 최신 농업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시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황금’ 옥수수로 맛과 건강 챙겨

농진청, 개발한 철옥수수 황금맛찰 · 황금흑찰 품종 소개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는 철옥수수는 7~9월이 제철이다. 쫄쫄한 식감에 식이섬유와 베타틴 등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게다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같은 기능성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좋은 건강 식이다.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철옥수수 수확기를 맞아 영양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국산 철옥수수 ‘황금맛찰’, ‘황금흑찰’ 품종을 소개했다.

먼저 ‘황금맛찰’은 2016년에 농촌진흥청과 충북 괴산군이 공동 개발한 노랑 철옥수수로 흰철옥수수보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8배 이상 많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아맹증 예방), 피부 건강(피부 건조 억제),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황금맛찰은 쫄쫄옥수수로 먹을 수도 있고 떡, 옥수수쌀, 파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로 괴산군에서 지역 특화 작물로 재배하며, 종자는 괴산군에서 보급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종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황금흑찰’은 2022년 개발한 검정 철옥수수 품종이다. 한 알에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동시에 함유된 국내 최초 품종이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 외에도



시력 보호, 암 예방,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며,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 건강, 시력 개선, 염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금흑찰은 쫄쫄옥수수뿐만 아니라 조청, 옥수수차, 건강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업체에서도 종자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충북부작물연구센터 이병규 과장은 “옥수수는 입맛을 돋우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여름철 영양 간식이다. 특히 옥수수에 들어 있는 베타틴(B)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무기력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식감과 기능이 뛰어나고, 맛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하는 옥수수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BESS’ 연구개발 본격화

참여 기관 · 업체와 착수회의... 2028년 완성 목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이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지난 10~11일 ‘극한 환경 BESS 개발’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 SDI · 서울대 산학협력단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주)기술원 등 17개 참여 기관 50여명의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추진된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모으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저장률과 자가전단·자가복구 등의 기능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회의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최근 농협전북본부에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활성화 회의의 진행했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를 활용해 경종농가에 공급 및 살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업이 상생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제 지원사업, 경축순환 우수모델 발굴 등 현장에 실질적 지원설명과 우분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우분연료화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경축순환을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며 “전북농협은 경축순환모델 확대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여업체 모집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우리쌀의 우수성과 쌀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에 참여할 전북 도내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쌀가공식품·우리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행사로 올해는 더욱 확대된 규모와 체계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품평회 출품작 접수는 8월 1일까지 K-라이스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www.k-ricefesta.co.kr)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쌀 가공식품 부문이 △조리식품(일반업체) △비조리식품(일반업체) △농협 시판식품 등 3개 부문으로, 우리술 부문이 △저도 발효주(9도 미만) △고도 발효주(9도 이상) △약·청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시상 규모도 전년 대비 12점이 늘어난 총 28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각 부

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된다. 특히 대상 수상작에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전체 시상금은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정환 본부장은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는 전북 쌀 가공식품 및 우리술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건단연, 새만금개발청 간담회

새만금 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방안 논의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15일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1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민간 투자유치 성과를 통해 전북 경제와 지역건설산업에 크게 기여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김경안 청장께서 그동안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 첨단제조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